

다양성 –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Cherryle Fruge, OFS
St. Joan of Arc Regional Minister

이 글의 제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제목들이 있었지만, 이것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제목은 텍사스 주 휴스턴의 헝가리의 성녀 엘리자베스 재속회의 한국인 회원인, 톰 하 (Tom Ha) 형제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작년에 아주 많이 제 마음속에서 반향을 일으키곤 하였습니다. 참으로 다양성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며, 이 선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특히 중요한 일입니다 .

우리 지역은 2020 년에 발생한 많은 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다양성팀(Diversity team)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 년 7 월 24 일 금요일, 서로를 더 알아가고 비전과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초반 모임에서, “가서 내 교회를 재건하라” 라는 말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팀의 목적이 재속회 일반 규정 제 19 항에 근거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 그들은 끊임없이 세워져야하는 평화의 전달자임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통해 단합과 형제적 조화의 길을 찾아야하며, 모든 이들 안에 성스러운 씨앗과 변화하는 사랑과 용서의 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종 차별적 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폭력에 대해 논의하고 질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 왜 폭력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 프란치스코 재속회원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다양성팀을 만드심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그 단어는 **대화**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대화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팀은 관계를 유지하고 재속회의 규칙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대화를 이끌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대화를 배울 수 있다는 데 동의했고,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나누고, 정말 서로 잘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주제에 대한 강한 감정이 생길 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서로의 지지를 받는 것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마음으로부터 나눔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주의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하거나, 결론으로 뛰어들지 않지만 우리는 먼저 질문하고, 거기서부터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화의 능력이 많이 성숙했음 경험했다고 느낍니다. 프란치스코로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고 대화를 장려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다리의 건설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 공동체, 형제회, 본당, 국가 및 세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형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교회를 재건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화해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성 잔다르크 지역의 다양성팀 참가자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서 온 동양인, 아프리카인, 필리핀인, 쿠바인 그리고 유럽인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 출신들입니다. 우리가 지역 전역에서 대표로 모일 때, 우리는 우리 프란치스코회의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단합과 형제적 대화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프란치스코 성소의 소명을 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중에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문답, 사회 정의에 관한 교회 문서, 하느님의 종의 예 (the example of Servant of God), 재속회원 줄리아 그릴리(Julia Greeley OFS), Fratelli Tutti (번역자 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저서), 지역 자료 키트, 레스터 신부님의 저서 "What It Takes" 등이 있습니다.

다양성팀의 팀원들이 공유한 생각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종차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만 하며, 다름을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동등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연대는 인정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 사회 정의에 관한 활동은 프란치스코회 규칙의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Fratelli Tutti(프란치스코 교황님 저서)는 형제회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리를 짓고, 중재와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가르칩니다.
- 사랑의 공동체를 세계 안에서 그리고 형제회 안에서 이루어 내려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왜 폭력은 존재하는가?* 폭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다른 한 부분의 나, 즉 다른 자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편견은 모든 사회적 배경과 지위 안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 우리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맘에 들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맘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프란치스코인으로서는, 우리는 관계를 이루고 서로 가까워지려고 할 때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존중하지만, 그들의 판단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양성팀과 하는 여정을 평가하면서,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것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는 도전을 받았지만, 서로의 관계 안에서 훨씬 더 안전한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섬기는 리더를 발견하고 멘토링을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방법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팀을 통해 많이 배웠으며, 다른 지역 형제회에서도 시도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에서 다양성팀을 시작하도록 기쁘게 돕겠습니다. 편하게 저에게 연락 주세요. 새로 선출된

평의회의 피정이나 진행되고 있는 양성 교육의 주제로 다양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주제를 탐구하다보면 풍부하고 활기찬 형제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다양성 팀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웃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도록 이끄셨음을 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이들의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봅니다 - " *신비의 성체의 심오한 일치 안에 있는, 그러므로 나의 일부인*" 형제, 자매들. (Pope John Paul II, *Novo Millennio Ineunte* IV.43.) 우리가 일치와 형제적 조화의 길을 모색할 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다른 자아, 즉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나의 다른 부분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참으로 인류의 몸안에 있는 다양성은 하느님께서 부터 세상으로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할 지는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영감에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